

5일간의 어휘 _ 고전시가편

〈고전시가〉 주요 어휘 정리

DAY 1

- 시비 : 사립문
- 화류 : 꽃과 버들
- 수정렘 : 수정 구슬을 꿰어서 만든 아름다운 발
- 간장 : 초조한 마음 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- 도화 : 복숭아꽃. 봄에 주로 피며 백색 혹은 엷은 붉은색으로 핏 (색채어와 연결)
- 고촌 : 외파로 떨어져 있는 마을
- 현스^스하다: 야단스럽다. 신비롭다
- 천석고향 :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
- 여의다(여의다) : 멀리 떠나보내다. 죽어서 이별하다. (=사별)
- ~나다 : ~느냐?
- 슬허^허하다 : 슬퍼하다
- 두견화 : 진달래
- 건곤 :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. 천지
- 척촉 : 철쭉
- 간담 :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- 황상 : 황제를 이르는 말
- 노자 : 사내중
- 삼배 : 세 번 거듭 절함
- 동물 : 같은 종류의 물건
- 회환 : 갔다가 다시 돌아옴

DAY 2

- 장계 :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사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. 또는 그런 문서.
- 발정 : 길을 떠남
- 상연 : 매우 시원하고 상쾌함
- 뜬절 :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
- 삭 : 개월
- 귀심 :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
- 살 : 화살
- 빈천 : 가난하고 천함
- 백안 : 흰 기러기
- 화조월석 :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
- 연리지 : 한 나무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나뭇결이 하나로 이어진 것으로,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- 식어지다 : 죽다
- 두견 : 두견새. 전통적으로 슬픔과 한의 정서를 나타냄

- 괴다 : 사랑하다
- 금수 : 날짐승이나 길짐승이라는 뜻으로,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
- 공명 : 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
- 처군택민 : 임금에게는 몸을 바쳐 충성하고 백성에게는 혜택을 베풀
 - 조월경은 : 달에서 낚시를 하고 구름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이르는 말
- 성현 : 성인과 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
- 만고 : 매우 먼 옛날. 아주 오랜 세월 동안
- 은 :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살

DAY 3

- 휴지 : 조음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
- 감지 : 느끼어 알
- 식여지다 : '죽다'의 옛말
- 만결 : 지극히 오랜 시간
- 어엿브다 : '불쌍하다'의 옛말
- 암향 : 그윽히 풍기는 향기. 흔히 매화의 향기를 이룸
- 선객 : 도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세계를 떠나 자연·과 벗하며 산다는 상상의 사람
- 이역 : 다른 나라의 땅
- 춘궁 : '황태자'나 '왕세자'를 달리 이르던 말
- 무신 : 신하 가운데 무관인 사람
- 신고 :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애쓰. 또는 그런 고생
- 화친 :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
- 구중 : 구중궁궐.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으로, 임금이 있는 데굴 안을 이르는 말.
- 풍상 :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역만창생 : 수많은 백성
- 적시 : 시를 지음
- 방렬하다 L 몹시 향기가 짙다
- 피검 : 수사 기관에 잡혀감
- 건란, 춘란 : 난초과의 여러해살이 풀
- 고훤 : 앙상한 뼈. 앙상하게 마른 나무

DAY 4

- 객관 : 음식에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
- 조리 :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
- 청상하다 : 맑고 시원하다
- 영롱하다 : 광채가 찬란하다
- 청량하다 : 맑고 서늘하다
- 자연 : 보랏빛 연기
- 품 : 품격.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.

- 백중 : 제주나 실력, 기술 따위가 서로 비슷하여 낮고 못함이 없음
- 삼기다 : 생기다
- 마초다 : 맞추다
- 전승 : 문화, 풍속,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함. 또는 그것을 물려주어 잇게 함
- 관여 :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함
- 연원 : 사물의 근원
- 교화 :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
- 상응 :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
- 뛰다 : 움직이다
- 가없다 : 끝이 없다
- 강호 : 강과 호수, 자연
- 초당 : 초가집
- 하다 : 많다

DAY5

- 헛다 : (행동 따위를) 하다
- 소임 :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
- 험(혜음) : 생각
- 사뢰다 :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
- 도롱이 : 짚,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.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
- 녹음 :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수풀. 또는 그 나무의 그늘.
- 길쌈 :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
- 계다 : 지나다
- 니어서니 : 이어지니
- 한: 큰
- 도곤 : 보다 더
- 진면목 :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
- 가히 : 능히, 넉넉히
- 모쳐라 : 마침(우연찮게)
- 오상고절 : 서릿발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홀로 꿋꿋함